



順天金氏中央宗親會

제38호 2003. 10. 7(화)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 발행인 : 김종식 / 편집인 : 김학원 / http://www.schkim.co.kr /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 / 전화 : (02)400-2501 ~ 2502 / FAX : (02)400-2505

順天金氏泉報

夏季大學生教養講座，大盛況！



매년 순천김씨 중앙종친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교양강좌가 지난 여름 (8월4일 ~ 8월 7일)에 3박 4일 동안 등원재(同源齋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에서 종식(鍾植) 중앙종친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會長團)과 경향각지(京鄉各地)에서 참여하신 300여명의 종친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대한
일소식이 거행되었다.

청년간사(青年幹事) 김승연 교수의 주관 하에 순천 김문(金門)의 지명한 교수 및 변호사, 원로 종친들의 적극적인 강의(講義) 및 봉사와 희생으로 21명의 대학생들이 알찬 교육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교양강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수 있도록 봉사해주신 종친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현신적인 숭모정신으로 바쁜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아낌없는 사랑을 학생들에게 베풀어주신 도유사 춘희 종친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양강좌에서는 (1) 대통보 편찬의 당위성과 중요성 (2) 문헌상에 기록된 선조들의 발자취 (3)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의범절 및 지혜 (4) 순김 대학생 상호간의 유기적인 활동 방향 모색 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사항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 효과를 실현시킬 것을 절실히 다 학습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대학생 교양강좌가 펼쳐질 수

있도록 종친어르신들의 지도편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많은 관심속에 본 대학생 교양강좌
가 더욱 계승 발전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중친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간사 김승연 교수 記)



입소식 기념

〈송파구민회관 찾아오는 길〉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
되는대로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二) 業務報告
(三) 第十四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三) 第十五期 決算案 審議
(四) 其他 討議事項

- (二) 中央宗親會全任員斗代議員
四· 議案

一 日時 .. 二〇〇三年十月三十一日(金)十一時
二 場所 .. 서울特別市松坡區三田洞六二二一
三 솔밭자리(松坡里)

順天金氏中央宗親會

中興祖 事蹟 守護管理 委員會

“2억원을 쾌척하겠다는 종친도 있다.”

2003년 9월 30일 11시 중앙종친회 회의실에서 중흥조 사적 수호사업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집행부에서 마련한 양경공 사적지 수호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의 검토하고 격의없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종친동의 성원속에 시조 묘역 정화사업에 진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할일이 많이 남았으나 문중의 중론이 양경공 재실 정화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하라는 여론에 따라 노력해온 결과 종친중에 2억원을 쾌척하겠다는 후원자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회의는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이어 양경공 사적지 정화사업 추진 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추진위원은 중앙종친회장과 경덕재 도유사는 당연직으로 하고 참의공, 정낭공, 판서공, 충정공파에서 각 2명 절재공, 전서공, 북재공에서 1명씩을 선정하여 양경공 사적지 수호관리 위원회를 구성할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또한 위원선정은 중앙종친회 회장에게 일임하며 과거 남아있던 유적보존 기금 문제와 토지 가치분 신청건은 추후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하였다.



양경공 사적지 정화사업 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의하다

우리 譜牒 史乘의 思惟

우리나라의 氏族의 分布를 보면 각 姓氏별로 分類되어 256姓氏로 나누고 있으며 이를 合하여 韓民族이라 한다. 우리 順天金氏도 이 中一部分에 屬하고 있다. 우리 順天金氏 後孫들도 他 姓氏들과 같이 現實的 社會國家制度에 適應하면서 子孫萬世도록 繁榮되기를 바라면서 進取의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 民族이 根本으로 하는 것은 역시 뿌리를 所重히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각 姓氏마다 門中과 宗中이 있고 같은 貴鄉은 一家라 하고 같은 一家끼리 모임체가 宗親會이고 花樹會라 한다. 여기쯤 말하고 族譜에 對한 歷史的 史料를 살펴 보기로 한다. 우리 順天金氏는 氏族의 運命은 참으로 崎嶇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數百 星霜동안 順天이란 이름을 가진 古木나무가지 처럼 모든 風霜을 겪어 왔으므로 이제 와서 그 苦難을 克服할 수 있는 餘力を 쌓은 氏族으로 成長하고 繁盛하여 왔다. 이제부터는 大同和合하여 우리 順天金氏 子孫永世토록 불려 줄 氏族의 史錄 卽 譜牒를 修譜重修함에 있어 지난 過去에 잘하고 못 한점을 至今 와서 論할바가 아니다. 우리 順金이나 他 姓氏라 할지라도 한 氏族이 譜牒를 重修하는 데에는 그 家門에 代를 이어오는 家牒과 家乘을 根幹으로 하고 또한 그 姓氏始祖의 家纂과 家族 等을 基本으로 하며 아울러 國乘을 詳考하여 譜牒으로 編纂한다고 思料된다. 그럼으로 우리 順金家門도始祖 平陽君의 家纂이 築錄되어 있어 우리 譜牒에 世德錄 앞장에 실려있다. 이제부터 우리 譜牒 史乘의 思惟에 對하여 論하기로 한다.始祖 平陽君 家纂이 築錄된지 54年 後 甲申譜(1764年)가 刊行되었다.

우리 順天金氏는 他 姓氏 族譜刊行 年紀보다 約 200餘年 後였고 始祖 家纂이 築錄되어 있어도 節齋公이 復官되지 않은데 (1746年 12月에 復官함) 因基된 것으로 思料된다. 참으로 慨嘆 할 일이다. 그리고 節齋公 復官 後 19年 後(英祖40年)에 譜牒를 修譜하였으나 始祖 平陽君 家纂을 詳考하여 보면 각 派門中에서 保存 所藏하고 있는 家乘이 그 當時에도 있었음을 證明한다. 그러함에도 充分히 考察 詳考치 못하여 史錄과 家乘에 登載되어 있는 内容이 排除되고 大系派 為主로 編纂되었다고 考證할 수 있다. 이는 癸酉被禍를 處斬하게 當하여 滅門之禍까지 이르렀던 順天吾金의 後孫으로서는 또 다시 이런 禍를 當할까 두려워서 오늘과 같은 우리 族譜에 誤謬를 남겼고 譜牒沿革의 年紀와 또한 丁巳譜와 丁卯譜의 年限은 무려 130년이란 1世紀 半이나 經過하도록 修譜치 못하였던 占을 考察할 때 可히 그 原因을 大略 基酌할 수 있다. 順天吾金의 後孫諸君子께서는 峻嚴하게 思惟하기를 바랄뿐이다.

西紀 2003年 盛夏

中央宗親會 常任顧問 金 榮 熙 考

中興祖 事蹟 守護 管理 委員會 (襄景公 史蹟地 淨化 事業 推進會)

守護管理委員長

金鍾植

都 有 司

金光熙

推進委員長

金榮熙

副委員長

金道淵

參議公派 委員

金仁燮

正郎公派 委員

金景南

忠貞公派 委員

金正泰

判書公派 委員

金相容

默齋公派 委員

金東洙

節齋公派 委員

金志燮

典書公派 委員

金學淳

金東澤

金學元

金炳潤

안내 ······

癸未年 秋享 大祭 案內

2003년 10월 25일 (土) (음. 10월 1일)은 秋享大祭日 입니다.
바쁘신 일손 잠시 멈추시고 名門華闕 後孫답게 모두 參禮합시다.

* 봉행장소 :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묘소

* 봉행시간 : 10월 25일 11시 30분

* 연락처 :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02) 400 - 2501~2

조상의 얼 살아숨쉬는 玲瓏한 文化遺產

● 謂號錄

世	顯祖封爵	謚號	謚法	解 設
二世	新羅	金裕忠武君	忠武	憲國忘家曰忠 保大定功曰武
十世	高麗	金德洪大保	文成	剛柔相齊曰文 修德來裔曰成
十三世	麗	金希哲吏部尚書	文忠	修德來遠曰文 推賢盡忠曰忠
十六世		金沂翰林學士	文孝	忠信愛人曰文 慈惠愛親曰孝
二十二世	朝鮮	金承珪平陽府院君	襄景	有勞甲冑曰襄 由義而制曰景
二十二世		金宗瑞	忠翼	危身奉上曰忠 思慮深遠曰翼
二十三世		金有讓順平君	忠貞	事君盡節曰忠 清白自守曰貞
二十八世	鮮	金汝吻順昌府院君	壯毅	武而不遂曰壯 寬厚勇決曰毅
二十九世		金鑑昇平府院君	文忠	勤學好問曰文 事君盡節曰忠

● 旌閭錄

1. 金宗瑞·金承珪 旌閭門

癸酉政變時 殉節한 節齋 金宗瑞와 父親의 禍를 몸으로 막으려다
被禍量 嘗한 金承珪공의 有 忠孝大節을伸冤復官 後 英祖 丁卯
1747年に 特恩으로 孝行旌閭門을 節齋公 墓下에 세우게 했다.

所在地：忠南 公州市 長岐面 大橋里

2. 金光潤 配 商山金氏 旌閭門

金光潤의 配位 商山金氏는 丁丑 1577년 當 16 歲에 壬辰倭亂에 父인
義士公이 戰死하자 戰場의 危險을 무릅쓰고 三日晝夜로 父親의 尸
身을 찾아 安葬하고 白碑를 세워 後世에 父親의 譲至를 傳하니 正
祖大王이 1793癸丑年에 孝行을 至極히 여겨 孝女旌閭閣을 내리셨다.

所在地：慶北 閔慶市 山陽面 盤谷里

3. 金汝吻 四世 忠烈門

宣祖25年(1592)壬辰倭亂 때 忠州 彈琴台에서 殉節한 忠臣 壯毅公
畏庵 汝吻將軍의 旌閭門과 仁祖14年(1636)丙子胡亂이 일어나 서
울이 胡軍수중에 들어가게되자 妃嬪 및 王子와 士大夫 婦人们이
江華島로 避亂하였으나 胡軍이 江華島에 上陸하자 汝吻將軍의 後
配인 平山申氏가 말하기를 士大夫의 婦人们이 捕虜가되어 耻辱을 當
하느니 스스로 죽음이 옳다하며 四세가 投身自決하였다. 仁祖께서
貞烈로 褒賞하여 四世 忠烈門을 下賜하였다.

忠臣 贈 領議政 行 通政大夫 義州牧使 贈 謂 壯毅 金汝吻之門
烈女 贈 領議政 行 通政大夫 義州牧使 贈 謂 壯毅 金汝吻 後配 平山申氏之門
烈女 領議政 金鑑 配 貞敬夫人 晉州柳氏之門
烈女 刑尹 金慶徵 配 貞夫人 高靈朴氏之門

烈女 贈 嘉善大夫 吏曹參判 行 通政大夫 刑曹參議 金鑑 配 貞夫人 晉州鄭氏之門

所在地：京畿道 始興郡 秀巖面 瓦里

4. 金潤道 旌閭門

金潤道公은 橫城公 十一世孫으로 1805년 乙丑生으로 孝行이 至極
하여 父親을 奉養하며 精誠을 다하였으나 차도가 없고 臨終이 가
까워지자 斷指하여 輸血로 父親의 목숨을 延長하였고, 母親의 病
患도 해소가 極甚하여 비둘기알이 效驗이 있다하여 嚫冬에 찾아
헤맸으나 찾지 못하고 돌아오자 방안에 비둘기가 있어 治療에 쓰
고 병이 나았다고 한다. 1903년 慶尙監司가 感動받고 나라에 上
言하여 1904년 6月에 朝廷에서 旌閭門을 下賜하였다. 現在 文化遺
蹟0919-22-026號로 登錄되어 있음.

所在地：慶北 星州郡 金水面 廣山里

5. 金鍾道 配 孝婦閣

橫城公 十五世孫 金鍾道의 配 金海金氏는 17 歲에 시집와서 媳父
嘉善大夫 萬戶 金俊尚公의 病患을 10年동안 至極정성으로 看病하는
孝婦였다. 嚫冬雪寒에 醫員이 이르기를 구령이 알을 구하라하니
雪窟속에서 구령이 알을 구해 治療에 쓰니 병이 호전되었다.
後日 臨終時 金氏가 슬피 哭을 하니 烏鵲도 같이 울었다 한다.
儒林에서 金氏의 孝行을 朝廷에 上言하니 1909年 2月에 孝婦閣
이命旌되었다.

所在地：大邱市 達西區 巴山洞

● 文集錄

世	諱	字	號	年 代	文 集 名	備 考
二十二世	宗瑞	國卿	節齋	1383~1453	制勝方略	
二十八世	興國	景仁	水北亭	1557~1623	水北亭文集	
二十八世	樂春	泰和	忍百堂	1525~1586	忍百堂文集	
二十八世	協吉	甫	忠孝堂	1546~1638	忠孝堂文集	
二十八世	復興	景言	谿谷	1546~1604	谿谷文集	
二十九世	壘	冠玉	北渚	1571~1648	北渚文集	
二十九世	慶長	德承	龜巖	1597~?	龜巖文集	
二十九世	光輝	而晦	竹日軒	1561~1610	竹日軒文集	
三十一世	允安	而靜	東籬	1560~1623	東籬文集	
三十一世	煥	德溫	復初堂	1582~1667	復初堂文集	
三十六世	浩碩	善吾	石泉	1861~1930	石泉文集	
三十七世	俊昊	子明	智山	1881~1950	智山文集	
四十世	泰永	士楫	霞隱	1869~1951	霞隱文集	
三十八世	宏遠	大卿	水岡	1907~1978	水岡文集	
四十世	道淵	文輔	匏庵	1872~1940	匏庵文集	
四十一世	秉兌	應鳴	慕川	1893~1980	慕川文集	

● 文化財 및 遺品錄

文化財·遺品	諱	文化財指定	所 在 地	備 考
始祖影幀 城隍神	捷	全羅地方文化財 27號	順天市 昇州郡 住岩面 住岩里	同源齋 影堂에 所藏
開國定社佐命三 盟之臣會盟錄券	承祚	慶北有形文化財 309號	閔慶市 加恩邑 鵠泉里	月潭祠廟에 所藏
節齋公 墓域	宗瑞 承珪	忠淸指定文化財 16號	公州市 長岐面 大橋里	節齋公 墓域 内
芳春亭	孝友	全南地方文化財 209號	全南 海南 芳春里	芳春書院 境內
金汝吻四烈忠烈門	汝吻	京畿文化財資料 8號	始興郡 秀巖面 瓦里	金汝吻 外 四世婦人 貞烈門
太宗下賜品 實刀 實龍鏡·珉玻璃	承祚	文化財 申請 準備中	慶北 青松 府南面 下凍里 京畿道 義州市 長湖院	資憲公 門中所藏 後孫 金鍾洛 所藏 (珉玻璃 紛失)
節齋公 遺墨	宗瑞	國立博物館에 所藏	國立博物館	節齋公의 親筆豆 順天金氏의 家訓
節齋公 生家	宗瑞	公州市에서 遺墟碑 堅立 管理	公州市 儀堂面 月谷里	
節齋公 在職時 習跡	宗瑞	習跡 表石 設置	現 農協 中央博物館 자리	
節齋公 胸像	宗瑞	戰爭紀念館 國防有功者 33人 胸像	서울시 龍山區 戰爭紀念館	
北渚公 影幘	壘	文化財 申請 準備中		胄孫 保管

제18회 대학생 교양강좌를 마치면서...



안녕하십니까? 종친여러분!!!

몇십년만에 맞은 혹독한 장마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혹시라도 피해를 입으신 종친이 계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우리 순천김씨 중앙종친회에서는 제 18회 대학생 교양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박 4일동안 교양강좌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신 종친 어른들께 큰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순김의 대들보가 되실 학생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큰 명절에 느끼는 일이지만, 특히 금년 추석연휴에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께 드리는 차례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위대한 정성을 우리 국민의 자랑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조상님들께 바치는 우리들의 이 정성은 우리들 자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교량 역할을 할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순김의 젊은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오로지 조상님앞에 모든 정성을 바치므로써 새로운 가치관과 활력소를 얻으려는 가득한 마음씨를 높히 평가해주시고 싶습니다. 부족한 제가 부모님들의 효정신을 학생들이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시켰지만, 잘 이루어졌는지는 감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교육을 위해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주신 종친 어른들과 강사 어르신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하튼 별다른 사고없이 어느 정도 목적에 부합되도록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조상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올리며, 내년에는 더욱 알차고 효율성있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 김병선

"순천김씨 재학생 교양강좌"

정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유독 나와는 인연이 없는 듯 교육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대학교 1학년 때는 신청일자가 늦었다는 이유로부터 시작해서 군대에 다녀오기까지... 결국 4년만에 이곳 교육을 참석하였고 글을 쓰는 지금은 교육을 무사히 마쳐 너무도 기쁘고 즐겁다.

올해에도 학교에서 있는 학술 발표회 준비로 참석이 어려울 듯 했지만 교수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어렵게 참석한만큼 기대를 가졌고, 어떤 교육을 받을지 너무도 궁금하였다.

8月 4日 아침 일찍부터 전주를 출발하여 목적지인 순천으로 향했다. 전주에서 순천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 약 두시간 정도 달려 순천에 도착했다. 순천 동원재...

동원재에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비에 세겨진 '전라남도 문화재 27호 순천김씨 시조 사적지'라는 글자를 볼 수가 있었고, 그 글을 보는 순간 나의 가슴에는 웬지 모를 감동이 올라왔다.

도착 후 여장을 풀었지만 입소식이 오후 다섯시여서 많은 시간이 있었다. 먼저 온 일행이 있어서 도유사 춘희 어르신의 소개로 서로 맞장을 하며 인사를 하고 개략적인 우리 집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다섯시 전후로 하여 하나 둘씩 대학생들의 모습이 보였고, 같이 오신 일가 어르신들도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넓었던 방안이 블비기 시작하였다.

간단한 입소식 후 저녁식사를 하고 첫날 저녁강의가 시작되었다. 첫날 강의는 어르신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며 젊은 나에게는 상당히 도전적인 내용들이었다.

둘째날부터는 본격적인 뿌리 찾기의 교육이 시작되었다. 먼저 전통 예절에 관한 내용을 배웠는데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에 음양 오행사상을 가미시켰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었다. 관훈 상제를 음양 오행사상에 입각하여 해석한 내용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오후에는 우리 순김의 역사적 연혁과 대표적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이야기로 듣기만 하면 내용들이 강의식으로 들으려니 조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중앙 종친회 상임고문 어른의 강의 내용을 열심히 듣고 있으니 모르던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수 있었고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들릴것만 같았다.

다음 강의는 복한 문제에 대한 토론 수업이었는데 대학원생 한분과 귀순자 한분을 직접 모시고 학습을 하여 우리들의 흥미를 끌었다. 토론 이라기 보다는 거의 우리가 질문하고 귀순자분이 답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새로운 사실에 대한 맑이 어느덧 우리 수업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 넣기에 충분했다.



진지한 강의

아울러 아래에 교양강좌를 마치고 나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감상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지면에 허락하는한 많은 학생들의 글을 기재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용기를 마음속으로나마 계속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종친님들께 건강과 행복이 넘쳐 흐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순천김씨 중앙종친회 청년간사

김승연 드립

이어서 도유사 어르신의 강의가 있었는데 도유사 어르신의 강의는 정말로 일반 상식에 불과한 내용이었지만 대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지 않나 싶다. 생활 예절과 제사. 그리고 족보에 관련된 약간의 내용이 정말 정말 소중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 정말 작은것 하나나 제대로 모르는 내가 부끄럽긴 했지만 배워서 더욱 잘 알아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새로운 내용과 많이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다.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저녁에는 우리 학생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다음과 함께 교양강좌에 대한 개인의 의견들도 나누고 서로서로 자기 소개를 하며 인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다. 한마디, 두마디 이야기를 하나로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실감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셋째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날(?)이었지만 어제 친교의 시간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몸과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둘째 날 보다는 여유가 있는 속에 강의가 진행이 되어서 참을만 했다. 오전에는 우리 문중의 변호사 한분을 모시고 '문중과 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들었다. 이분의 강의는 꼭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방식이라 적용하기가 매우 쉬웠다. 강의 내용도 매우 알차고 좋았는데 종중(宗中)이란 집단을 정의하고 단체로서의 법률적 정의와 종중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셨는데 수업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편했던 것 같다.

오후 강의는 문중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비교적 가벼운 내용의 강의였다. 두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모두 우리들의 바른 삶의 태도와 성공적인 삶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 좋은 내용이었지만 두분 모두 공통적인 내용 하나를 강의하셨는데 바로 즐겁게 웃으며 살자는 것이다. 행복은 만족함에 있다는 내용...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매우 새롭게 다가왔다.

셋째날 강의를 마친 지금. 이번 하기 강좌를 돌아보건데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오긴 했지만 많은 것을 얻어 갈수 있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불편함도 없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의 열정에 그려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본다면 고리타분하고 지겨운 강의들이 많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순김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수 있고 훌륭한 조상과 더불어 매우 훌륭한 선친들을 통해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다른 가문에는 없는 이러한 뿌리를 찾는 여름 교양 강좌를 통해 많은 우리 순천김씨의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더욱 조상들에 대해서 잘 알아서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선친들의 덕을 기리며 승조정신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 김형주

생 교8월 4일 설레이는 마음과 두근거림을 갖고 순천행 기차를 탔다. 생전 처음 가보는

순천이라,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같은 성씨 같은 일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신기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겼다. 5시간 걸려, 순천역에 도착해서 종친 어르신들이랑 기쁘게 점심을 먹고 차를 타고 다시 1시간 가량을 거쳐서 왔다. 올때는 서울에서 나랑 같은 동갑내기 한명만 같이와서 2명이서 교양강좌를 들어야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와보니 많은 어르신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보였다. 낯선 환경에 처음엔 많이 어색했지만, 같은 핏줄이라 그런지 친근해보였다. 하나둘씩 어르신 분들과 대학생들이 도착하면서 일정이 시작되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받은 것은 종친회에서 만든 유니폼이었다. 이것을 입고 우리들은 작년, 재작년에 온 사람들이 그려했듯,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어른들의 지시에 따라 말로만 듣던 시조 영정과 무덤에 가서 조상들에게 절을 하였다. 거기서 간단하게 절하는 법과 탈경과 탈의에 대해서 배웠다. 저녁을 먹고 나서 본격적으로 교양강좌가 시작하였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살아온 경험담, 아니면 이럴땐 이렇게 한다는 식의 친절한 예절교육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다양하게 교양강좌를 이끌어 나가셨다.

그렇게 첫째날이 지나고 둘째날이 밝았다. 모기와 벌레들 때문에 잠을 좀 설쳤지만, 첫날의 피로감과 안도감에 잘잘수 있었다. 아침을 먹고 8월 5일 우리의 두번째 하루의 시작과 함께 강좌가 시작되었다. 일정표가 나와있지 않았고 강좌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쉬는 시간과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연륜으로 인해 지겹지 않고 딱딱하지 않은 강좌가 되었다. 인상에 남았던 강좌는 우리생활에 꼭 필요한 한자강좌와 항렬, 촌수, 그밖에 절을 할 때와 제사를 지낼 때 어떤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려주셨던 것과 북한의 문제에 대해 우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였던 기억에 많이 남았다. 강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어른들끼리 인사를 하고 뜻迥었던 어르신들을 만나 얼굴도 뵙고 뜻깊게 보냈다. 저녁시간이 되자, 같은 종친인 대학생들끼리 친교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처음에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우리들이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들보다 빨리 친해질 수 있었다. 둘째날 친고의 시간을 끝으로 셋째날이 시작되었다. 그 전날 건의사항이 좀 있었지만 다음번에는 더 좋은 하계강좌가 시작될 것을 믿는다. 셋째날인 지금 강의가 끝나고 감상문을 쓰고 있는데 쓰면서 처음엔 길게만 느껴졌던 시간이 어느덧 내일이면 끝난다 생각하니 사뭇 섭섭하다. 나중에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 때에는 내가 대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년에 더 좋은 강좌가 되길 바라며 뜻깊은 시간과 경험을 만들어 주신 종친회 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 김광희

순천 김씨 종친회에서 주최하는 수련회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성씨에서는 이런 수련회가 없다며 있는 우리 순천김씨가 이상하다며 말을 들은 적도 있지만 조상의 뿌리와 문화를 안다는 데서 이런 수련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처음 수련회에 왔을 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조금 끄적하고 했다. 그리고, 첫날 학생들끼리 소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리라 생각하며 기다렸지만 다가오는 건 어르신들의 자리는 말씀이었다. 저는 어이가 없었다. 그런데도 같은 피가 흘러서인지 말 한마디에 친해지고, 술한잔에 친해져서 첫날 반이상의 학생들을 알 수 있었다. 점점 말을 하고 부대끼다보니 어느덧 수련 학생들과 친해져 농담도하고 같이 뒹굴고 하니 좋았다. 미피아 게임도 좋았다. 솔직히 말해, 전 수업시간에 하도 깜빡깜빡 놀아서 생각나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생각난다. 첫날 수업에서는 조폭 아저씨의 인생담 생각이 난다. 처음 안동 구답에서 같이 온 어르신이지만, 첫 인상부터 금시계에 금반지, 금목거리, 온몸이 다 뻔쩍뻔쩍했다. 성함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어르신의 그 인생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온 학생들이 주목을 하며 말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했다. 어르신의 말씀중에 생각나는 몇 마디가 있다. 첫번째는 '젊음은 일억천금을 준다하여도 바뀌지 않는 재산이다' 두번째는 '순천김씨가 소수의 집단인 만큼 하나로 묶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두번째 날 수업에서는 회장님 아드님의 수업인 '북한문화....'라는 것이 생각난다. 아드님이 들어오셔실 때 웬 여자 한분이 따라 들어오시길래 아드님의 아내 줄 알았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하고 나서 보니 북한에서 온 귀순자여서 조금은 놀란 마음도 있었고, 수업이 토론식이라 잠도 안오고 아주아주 좋았지만 중간중간 어르신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업이 뚝뚝 끌기는 느낌이 들었다. 세번째 날에는 조금 늦게 잔 것도 있지만 너무 수업이 지루하고 강합식이라 생각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좀 미안스런 생각도 들지만, 어르신들과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달라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아직도 제가 무슨파에 몇대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김씨 하계 수련회는 종친회에서 아주 잘 여는 것 같습니다.



18기 하계 수련회 (21명)

	이름	주 소	전화번호	e-mail
1	김 대훈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3-6 반석교회 3층	011-9397-3958	pegasus-kdh@daum.net
2	김 광희	경북 안동시 풍천면 3담 2리 538	019-544-2657	nudefut@daum.net
3	김 철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301	011-611-1672	toki8297@daum.net
4	김 정현	전남 광양시 금호동 장미아파트 12동 202호	011-9222-9956	ioyfr@daum.net
5	김 영훈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97-10	011-847-0434	vinia83@daum.net
6	김 태현	서울 중랑구 중화2동 322-130호 옥탑	011-9602-3270	redzs@daum.net
7	김 수현	경남 거제시 옥포2동 886-9 2층	019-206-0573	teromuce@daum.net
8	김 경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답리 424번지	016-773-3487	yarkerd@daum.net
9	김 호진	경북 안동시 신안동 58-6	019-9358-0722	metrofrs@daum.net
10	김 지현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468	011-9475-6088	1kjh2jh3h@daum.net
11	김 형주	서울 중랑구 면목8동 미성라이프 806호	016-9499-6733	khj83khj@hotmail.com
12	김 영규	서울 관악구 봉천동 63-16	011-9743-5727	ncmind@hotmail.com
13	김 은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남양효자맨션 708호	018-241-0119	eh_lovely@hotmail.com
14	김 동호	대구 달서구 도원동 아담마을 아파트 912-404	011-9579-0834	surprisefimm@hotmail.com
15	김 하나	전남 해남군 계곡면 여수리 268	011-9440-6153	hana6153@hotmail.com
16	김 병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423-1 (10/4)	011-9648-8069	sun8061@mail.chonbuk.ac.kr
17	김 정수	전북 영주시 휴천2동 현대아파트 105-603	011-809-5438	jungsuranda@daum.net
18	김 호민	경기 하남시 덕풍동 336-40 라인아파트 101-302	019-9210-6939	min2_8306@hatmail.com
19	김 태영	전남 광양시 금호동 장미아파트 12동 202호	011-9452-1229	kanai122@daum.net
20	김 영근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45-2	011-9229-7194	kojongs0099@daum.net
21	김 유정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1리	016-351-3303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3년 7월 1일 ~ 2003년 9월 30일

고 문

김명재 * 남3년 7월29일 경기도 안양시

회 장

김종식 * 남3년 9월26일

수석부회장

김상용 * 남3년 9월26일 광주광역시 서구

부 회 장

김대영 * 남3년 7월28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두원 * 남3년 7월29일 광주광역시 동구

김복재 * 남3년 7월31일 경상북도 안동시

이 사

김상운 * 남3년 5월29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두설 * 남3년 7월24일 경상북도 봉화군

김영창 * 남3년 7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종원 * 남3년 7월25일 경기도 양주군

김동준 * 남3년 7월28일 충청남도 천안시

김규연 * 남3년 7월29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김영배 * 남3년 7월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동백 * 남3년 8월01일 충청남도 금산군

김동학 * 남3년 8월22일 경기도 고양구 덕양구

김상웅 * 남3년 8월2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칠성 * 남3년 9월15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상목 * 남3년 9월22일 전라남도 해남군

대의원

김영도 * 남3년 6월30일 경기도 안성시

김계환 * 남3년 7월23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동규 * 남3년 7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기석 * 남3년 7월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김동구 * 남3년 7월3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명수 * 남3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등작구

김상윤 * 남3년 7월30일 전라북도 완주군

김유환 * 남3년 7월31일 충청남도 부여군

김학순 * 남3년 8월08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동희 * 남3년 8월22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세연 * 남3년 8월22일 경기도 파주군

회 원

김재동 * 남3년 7월02일 경기도 용인시

김좌섭 * 남3년 7월07일 경상북도 봉화군

김명석 * 남3년 7월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김종훈 * 남3년 7월10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김희원(정) * 남3년 7월10일 대전광역시 서구

김동국 * 남3년 7월1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명남 * 남3년 7월18일 충청남도 공주시

김동필 * 남3년 7월2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상욱 * 남3년 7월22일 경상북도 영주시

김국영 * 남3년 7월23일 충청남도 금산군

김귀원 * 남3년 7월23일 전라남도 담양군

김덕소 * 남3년 7월23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동천 * 남3년 7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상실 * 남3년 7월2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상우 * 남3년 7월23일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김숙재 * 남3년 7월2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익환 * 남3년 7월23일 충청남도 부여군

김종익 * 남3년 7월23일 전라북도 임실군

김진수 * 남3년 7월23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진영 * 남3년 7월23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희연 * 남3년 7월23일 경상북도 상주시

김남석 * 남3년 7월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동철 * 남3년 7월2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동한 * 남3년 7월24일 경기도 안산시

김백연 * 남3년 7월24일 제주도 제주시

김선원 * 남3년 7월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영목 * 남3년 7월24일 충청남도 금산군

김영희 * 남3년 7월24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옹희 * 남3년 7월24일 경기도 안산시

김준욱 * 남3년 7월24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형연 * 남3년 7월24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김삼연 * 남3년 7월25일 전라남도 임실군

김상민 * 남3년 7월25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일환 * 남3년 7월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김정희 * 남3년 7월2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김지연 * 남3년 7월25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덕규 * 남3년 7월28일 경기도 안양시

김동범 * 남3년 7월28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병희 * 남3년 7월28일 충청남도 논산시

김세희 * 남3년 7월28일 인천광역시 남구

김연수 * 남3년 7월2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김동열 * 남3년 7월29일 경기도 이천시

김상봉 * 남3년 7월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김원주 * 남3년 7월29일 강원도 정선군

김동익 * 남3년 7월30일 충청남도 천안시

김동필 * 남3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김삼근 * 남3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상복 * 남3년 7월30일 충청남도 서천군

김순희 * 남3년 7월30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윤택 * 남3년 7월30일 전라남도 담양군
 김인재 * 남3년 7월30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종구 * 남3년 7월30일 전라북도 전주시
 김종열 * 남3년 7월30일 전라북도 진안군
 김향환 * 남3년 7월30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동성 * 남3년 7월31일 경기도 성남시
 김동일 * 남3년 7월31일 경기도 이천시
 김병목 * 남3년 7월3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보근 * 남3년 7월31일 울산광역시 중구
 김상천 * 남3년 7월31일 경기도 고양시
 김성희 * 남3년 7월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임용 * 남3년 7월31일 대구광역시 동구
 김장희 * 남3년 7월31일 전라북도 전주시
 김재의 * 남3년 7월31일 경기도 수원시
 김정수 * 남3년 7월31일 경상북도 경주시
 김종해 * 남3년 7월31일 경상북도 경주시
 김홍연 * 남3년 7월31일 울산광역시 남구
 김동주 * 남3년 8월04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김동호 * 남3년 8월04일 강원도 원주시
 김상웅 * 남3년 8월04일 전라북도 익산시
 김석산 * 남3년 8월04일 경상북도 안동시
 김영연 * 남3년 8월04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평년 * 남3년 8월06일 전라북도 진안군
 김홍진 * 남3년 8월06일 경상북도 영주시
 김성배 * 남3년 8월07일 경기도 수원시
 김영복 * 남3년 8월07일 전라남도 순천시
 김천재 * 남3년 8월07일 경기도 고양시
 김상학 * 남3년 8월08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병남 * 남3년 8월11일 경기도 김포시
 김상웅 * 남3년 8월11일 경상북도 구미시
 김동우 * 남3년 8월13일 인천광역시 서구
 김한웅 * 남3년 8월18일 경기도 수원시
 김서연 * 남3년 8월2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김동한 * 남3년 8월25일 경기도 용인시
 김성근 * 남3년 8월2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김학연 * 남3년 8월26일 강원도 철원군
 김동철 * 남3년 8월27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김재도 * 남3년 8월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김지호 * 남3년 8월27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동파 * 남3년 8월28일 경상남도 진해시
 김영수 * 남3년 8월29일 경상북도 성주군
 김우균 * 남3년 8월29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김주호 * 남3년 9월01일 강원도 춘천시
 김이승 * 남3년 9월02일 경기도 의왕시
 김원정 * 남3년 9월0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김증희 * 남3년 9월08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기현 * 남3년 9월16일 광주광역시 북구
 김병진 * 남3년 9월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김학연 * 남3년 9월25일 경상북도 문경시
 김장수 * 남3년 9월04일 전라남도 영광군

김동국 * 남3년 9월30일 경기도 고양시

무명인

김완선 대의원 * 남3년 1월07일 경기도 고양시
 김한열 * 남3년 1월28일 충청북도 충주시
 김준연 * 남3년 2월1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김용석 * 남3년 5월12일 경상북도 의성군
 김상만 * 남3년 6월20일 전라남도 해남군
 김승희 * 남3년 6월30일 강원도 철원군

누락자

* 03년 06월 30일 농협 / 대월
 * 03년 06월 30일 농협 / 경북신영
 * 03년 07월 23일 농협 / 서울
 * 03년 07월 24일 농협 / 성남 서은천
 * 03년 07월 24일 농협 / 월배월성
 * 03년 07월 25일 농협 / 남동간석복
 * 03년 07월 25일 제일 / 여의도중복
 * 03년 07월 28일 하나 / 압구정중앙
 * 03년 07월 28일 국민 / 대구수성
 * 03년 07월 28일 농협 / 광양원예
 * 03년 07월 28일 농협 / 경영상방지점
 * 03년 07월 28일 농협 / 가은 김병완
 * 03년 07월 30일 농협 / 해남
 * 03년 07월 31일 우리 / 증산
 * 03년 07월 31일 농협 / 첨천
 * 03년 08월 06일 대구 / 영남대
 * 03년 08월 12일 국민 / 울산남부지점
 * 03년 08월 19일 하나 / 길동사거리
 * 03년 08월 25일 제일 / 충북도청출장소
 * 03년 08월 25일 우체국 / 수원영통 김관익
 * 03년 08월 25일 농협 / 안동서부
 * 03년 08월 27일 새마을 / 신당동
 * 03년 09월 22일 기업 / 이태원

제37호 宗報正誤表

- 1면 : 우측 4째줄 人山 → 入山
 2면 : 順天金氏 事蹟地 記文 誠心을 보아 → 모아
 棟 되어 → 棟樑되어
 經營治積 → 經綸 治積
 5면 : 宗親正誤表 → 宗報正誤表
 3면 : 洗劍亭에서 芳春亭까지
 金流公 → 金臺公
 좌하 7째줄 너지시 → 년지시
 4면 : 우상 6째줄 죽임 → 죽업
 우하 8째줄 일오선 → 일어선

모두가 '행복'이라 부르는 곳

매일 아침 당신이 처음 창을 여는 곳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당신의 하루를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는 곳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는 곳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아이들이 뛰어 노는 곳

당신의 웃음이 가장 밝아 보이는 곳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곳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밤새 마주앉아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해 잠시 불을 끄는 곳

모두가 '행복'이라 부르는 곳에

한화종합화학이 있습니다



품격있는 생활공간에서 아름다운 행복공간까지
한화종합화학은 고객의 행복한 생활을 디자인합니다



창호 사업

다양한 디자인과 앞서가는 기능으로 인테리어의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재 사업

비단장식재의 대표주자로 주택용과 상업용에서 고객의 감각과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장식자재사업

우수한 품질의 표면마감재와 인테리어용 인조대리석 등이 생활의 품격을 더해드립니다

부품 사업

자동차 내장재에서 신업자재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합니다

인테리어 名家

한화종합화학

www.hlcc.co.kr